

중년기 남성의 영성지향도,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이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 기 숙
(열린사이버대학교)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중년기 남성(40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일탈행동문제를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영성지향도,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이 일탈행동에 미치는 경로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파악하였다.

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영성지향도와 일탈행동의 관계에서, 영성지향도는 일탈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또한 자아존중감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지지는 일탈행동에 대하여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단정은 내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 남성의 일탈행동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복지학 영역에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영성지향도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 주었다고 볼 수 있고, 청소년 일탈행동 관련 변수로 알려졌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이 중년기 남성의 일탈행동 관련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었다.

주제어: 중년기 남성, 일탈행동, 영성지향도,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파음행동, 가정 내 폭력행동, 혼외관계행동, 도박행동

1. 연구의 필요성

사회적으로 중년기에 있는 남성들에게 기대되는 바는 사회적 중추로서 어느 정도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중년 남성들은 급작스런 생리, 심리,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자신에게 부여된 가족 및 사회적 책임감에 큰 부담감을 느끼고, 심

* 본 논문에 대하여 논평을 통해서 도움을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리적으로 쇠잔, 완고, 상실, 우울, 불만 등과 같은 심리적 갈등과 방황을 경험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보다 심한 경우에는 알코올 중독, 이혼, 혼외정사, 도박, 가정폭력, 자살 등과 같은 일탈행동¹⁾들을 나타 내기도 한다(Riegel, 1975; Levinson, Darrow, Klein, Levinson, and McKee, 1978; Gould, 1978; Ciernia, 1985; Tamir, 1989; 김명자, 1989; 김애순·윤진, 1993).

우리나라 중년남성들이 빈번하게 보이는 일탈행동들을 살펴보면, 과음행동(제갈 정, 2001; 연합뉴스, 2004-11-24), 혼외관계행동(이영숙·박경란·전귀연, 2000; 전요섭, 2002), 가정내 폭력행동(옥양련·박금식, 2001), 도박행동(이영분·이은주, 2003; 연합뉴스, 2004-10-31; 경향신문, 2004-10-31; 경향신문, 2004-11-01; 서울신문, 2004-11-01) 등이 있는데, 그 일탈행동들은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 사회적 측면에까지 부정적이고 파괴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면, 중년 남성이 일탈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경우, 그 개인은 자신의 나머지 삶은 돌보지 못한 채 결국 인생이 황폐화 된다. 가족적 측면에서, 중년 남성의 일탈행동은 가족들에게 심한 배신감, 실망감, 분노, 원망감, 경제적 타격 등과 같은 심각한 고통을 안겨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별거, 이혼, 가정파탄과 같은 가족 파괴적 상황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사회적 측면에서, 한 사회의 중추로서 생산과 소비 및 문화의 전승을 포함한 모든 사회활동의 중심에서 그 사회를 책임져야 하는 중년 남성들(이혁구, 1999)이 일탈행동으로 인해 직장과 사회에서 제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면, 커다란 사회적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

이처럼 현재 우리사회에서 중년 남성의 일탈행동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년 남성 일탈행동 원인들을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일탈행동과 그와 관련된 변인들을 연구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영적 특성이 음주, 담배, 도박, 약물 중독, 혼외관계 등과 같은 일탈행동들의 발생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다(Hong, 1981; 홍옥화 1993에서 재인용; 전성표, 2000; Koenig, 2001; 엄예선, 2001에서 재인용; 이영숙 외 2인). 그리고 주로 청소년 대상 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지지(진복선, 1997; 양돈규, 1997; 안재진·김지혜, 2004에서 재인용; 정규석, 2004)와 자아존중감(Walker, 1979; 김광일, 1987; 정서영, 1995; 최규련, 1996; 김경신·박옥임·정혜정, 1999; 박영신·김의철, 2003; 이홍표, 2003)이 일탈행동 발생 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다고 주장한 연구들이 있다. 그리고 이들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추측 가능케 하는 연구결과들도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고(Robinson, 1990; 김애경, 2003; 안재진·김지혜, 2004), 영성지향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들도 있다(Oscar, 1982; 김명자, 1989; Hall and Hall, 1997; Koenig and Cohen, 2001; Tan, 2003; Sperry, 2003).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이 갖는 특징들을 보면, 첫째, 이 연구들은 대부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점

1) 일탈행동의 범위는 사소하게는 우리 사회에서 일상적 삶의 기대 혹은 준거에서 벗어난 작은 일탈적 행동들로부터, 심각하게는 법에 저촉되는 문제행동들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일탈행동이라 함은 사회문화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사회규범(법률, 도덕, 민규, 민습 등 포함)에서 벗어나는 행동(Parsons, 1951; Merton, 1961)을 의미한다.

이다. 물론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가정폭력, 음주, 도박 등과 같은 일탈행동 문제들을 다룬 연구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중년기만을 초점으로 한 연구는 없다. 중년기는 발달 주기 상 그 시기만이 갖는 독특한 특징들을 갖고 있어서 중년기 일탈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년기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그간의 연구들 가운데 중년기 일탈행동이 될 수 있는 특정 행동들을 연구 주제로 한 연구들이 있기는 하나, 중년기 일탈행동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그 일탈행동에 어떤 행동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없다. 중년기 일탈행동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다루기 위해서는 중년 일탈행동에 관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어떤 행동들이 일탈행동에 포함되는 것인지를 파악해 보는 일이 필요하다.

셋째, 그간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일탈행동과 관련을 갖고 있는 변인으로 영성지향도,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등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그 연구들에서는 어느 한 변인과 일탈행동 간의 관계를 조사했거나 혹은 여러 변인들을 다루었다 할지라도 그 변인들과 일탈행동 간의 직접적 관계만을 조사하였을 뿐, 어떤 변인들이 일탈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어떤 변인들은 간접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변인이 매개 효과를 갖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고 있다. 중년기 남성의 일탈행동 관련 요인을 보다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단선적 경로만이 아니라, 어떤 변인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 그 복잡한 경로를 파악해 보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년 남성들의 일탈행동 문제를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기존의 일탈행동 관련 연구들에서 중요하게 다룬 영성지향도,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등의 변인들이 중년 남성의 일탈행동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으며, 그 변인들 간의 상호관계(직접, 간접, 그리고 매개효과)는 어떠한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중년 일탈을 설명하는 이론: 중년기 위기 이론

중년의 남성들은 인생의 전반부에 외적 세계에 관심을 두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내적 세계로 관심을 돌리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남성들은 급작스런 생리, 심리, 사회적인 변화를 경험하는데, 신체적으로는 자신의 신체 및 건강상태가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노화, 체력저하, 건강상태 위협)을 느끼고, 가족적으로는 노부모 부양 및 자녀 양육 책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되고, 사회적으로도 급격히 변화하는 직업 환경 속에서 직업 불안 및 직업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변화들에 직면하면서 중년기 남성들은 바람직하게는 자신의 인생을 재조명해 보면서, 성공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그 성취에 대하여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고, 성공적이지 못한 측면에서는 자신의 흠과 결함

들을 발견해 가며 삶의 전반적인 균형을 찾을 것이다(Levinson et al., 1978: 6). 그러나 많은 경우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위기의식은 생의 전반에 대한 의문, 갈등과 혼란, 절망, 침체감, 무기력감, 방향, 쇠잔, 완고, 상실, 우울, 불만, 자기의심, 직업 위기의식, 알코올 중독, 이혼, 혼외정사, 도박, 가정폭력 등과 같은 심리적, 사회적, 행동적 위기 등으로 나타난다(Riegel, 1975; Levinson et al., 1978; Gould, 1978; Ciernia, 1985; Tamir, 1989; 김명자, 1989; 김애순·윤진, 1993; 이혁구, 1999; 고기숙, 2002; 고기숙·이혁구, 2004). 중년기 위기로론 관점에서 보면, 중년기에 남성들은 생의 전환기적인 변화에 직면하여 청소년기에 이어서 또 다시 사춘기 시절의 방황과 갈등, 그리고 일탈행동을 할 수 있다.

2) 중년기 일탈행동 정의 및 실태

일탈행동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행해지고 있으나, 실상 일탈행동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어떤 학자들은 어떤 행동이 근본적으로 비정상적인 것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Franklin, 1991). 비정상적이라고 정의된 행동들은 정치적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한 시간, 장소, 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일탈행동을 정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²⁾ 본 연구에서는 법적 의미와 사회문화적 의미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법적 의미에 따라 일탈행동을 정의한 예들을 보면, 코헨(Cohen, 1959)은 일탈행동을 사회체계 내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공유되는 제도화된 기대를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고, 클로워드와 올린(Cloward and Ohlin, 1960)은 일탈행동을 사회의 기본적인 규범을 위반하여, 그 위반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알려져서 법에 의해 처벌 당하게 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법적 정의들에 의하면, 일탈행동은 그 행동이 사회 내에서 발각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범죄 행위 성격을 갖는다고 하겠다.

사회문화적 의미에 따라 일탈행동을 정의한 예들을 보면, 머튼(Merton, 1961)은 일탈행동을 지위나 역할, 제도화된 기대 등 여러 가지 사회규범으로부터 거리가 먼 행동으로 정의하였고, 파슨즈(Parsons, 1951)는 일탈행동을 어떤 구체적인 일련의 사회적 기대로부터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문화적 의미에 따르면, 일탈행동은 사회 내에서 통용되고 있는 일반적 기대로부터 벗어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법적 의미를 함께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정의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의미에 따라 일탈행동을 정의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일탈행동은 사회문화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사회규범(법률, 도덕, 민규, 민습 등 포함)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의미한다.

중년기 남성들에게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일탈행동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과음행동은 중년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탐닉하고 있는 행동이다(Kets de Vries, 1999). 우리나라 중년 남성들의 음주실태 조사 연구(제갈 정, 2001)에 따르면, 중년 남성의 음주율은 40대가 88.7%, 50대가 86.6%로

2) 일탈행동을 정의하는 방식으로는 첫째, 광의의 의미, 협의의 의미로 구분, 둘째, 심리학적 의미, 사회학적 의미, 정신분석학적 의미로 구분, 셋째, 법적 의미, 사회문화적 의미로 구분 등이 있다.

높은 수준이었고, 중년남성의 절반 정도(40대 52.1%, 50대 46.9%)가 과음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혼외관계 행동도 중년기에 남성들이 보이는 일탈행동 중의 하나이다(Levinson et al., 1978: 406; 진요섭, 2002; Henry and Miller, 2004). 중년 남성의 25-50% 정도가 혼외관계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고(Zastrow and Kirst-Ashman, 2002), 한국성의학 연구소 조사결과, 서울 거주 기혼남성 2천명 중 73%가, 전국 6대 도시 기혼여성 1천 4백명 중 15%가 혼외관계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여성중앙 21, 1998.11: 이영숙 외 2, 2000에서 재인용).

가정폭력도 주로 중년 남성들에 의해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중앙일보, 2001년 10월 24일). 인천지검이 2000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 1년 동안 처리한 가정폭력 사건 8백74건(9백15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로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아내가 전체의 86.7%(7백93명)로 절대 우위를 차지했고, 자녀는 5%(46명)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중앙일보, 2001년 10월 24일).

도박행동도 중년기 남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일탈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도박은 누구나 잘못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렁처럼 한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칠 뿐만 아니라, 가족들 까지도 어려움 속으로 빠뜨린다. 그 실태를 보면, 충청도 도시 및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기혼 성인남녀, 92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병적 도박자는 본 연구 표본의 11.6%이며,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분·이은주, 2003). 직장인들이 도박을 하다가 단속된 사례도 신문에서 보도된 바 있다. 감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모 구청 소속의 7·8급 공무원인 9명은 2002년부터 매주 1~2회에 걸쳐 구내 여관과 안마시술소 등을 전전하며 포커판을 벌여왔던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신문, 2004-11-01).

3) 영성지향도,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일탈행동 간의 관계

(1) 영성지향도가 자아존중감 및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영성³⁾이 신체·심리·사회적인 측면과 함께 인간의 전체성을 이루고, 또한 인간의 성장을 위해 매우 본질적이고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Sperny, 2003: 3), 그간 학계 및 현장에서는 인간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영성적 측면을 도외시하고 신체·심리·사회적인 측면에만 관심을 쏟아왔다. 이는 영성이 갖는 신비성, 비 객관성, 관찰 및 측정 불가능성 등에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Frame, 1996 : 300).

이처럼 영성이라는 개념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영성에 관한 개념 정의부터 할 필요가 있다. 주요 학자들에 의한 영성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영성은 사람들이 타인, 자연, 초월적인 것과 맺고 있는 상호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고(Otis-Green, 2002), 영성은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관점에 둘러싸인 인간의 삶과 발달의 전체적 과정의 형태라고도 정의되

3) spirituality를 의미하는 '영성'이라는 용어는 어떤 학자들에 따르면 '얼알'이라는 개념으로 번역되기도 한다(박승희·이혁구 외, 2003). 'spirituality' 본래의 의미를 살리는데 있어서 '영성'이라는 용어보다 '얼알'이라는 용어가 적합할 수도 있다고 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얼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그 용어가 현재 학문적 영역에서 통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고 있는데(O'Brien, 1992), 본 연구에서는 칸다와 필만(Canda and Furman, 1999)의 정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영성을 정의하고자 한다. 영성은 인간이 자신의 삶 등에 대한 의미감, 삶 등의 목적, 자기 자신 및 남⁴⁾들과 도덕적으로 성숙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되는 것을 정의한다. 이것은 종교적인 것과 비종교적인 것을 포함하고, 일상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초인적 체험과도 관련된다(박승희·이혁구 외 역, 2003). 여기에서 영성이라는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영성의 개념을 좀더 구체화시키고자 하는데, 그 구체화된 개념은 영성에 대한 헌신, 몰입을 의미하는 영성지향도(spiritual commitment)이다(Canda and Furman, 1999).⁵⁾

영성지향도가 개인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기존 연구들을 통해 살펴보자. 영성 지향도는 자아존중감, 개인적 평화감, 위안감, 생활만족도 등을 증진시켜 준다(Oscar, 1982; Hall and Hall, 1997; Koenig and Cohen, 2001; Tan, 2003, Sperry, 2003)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영적 안녕(Spiritual well-being)이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Popkess-Vawter, Yoder, and Gajewski, 2005). 그리고 본 연구에서 영성을 이루는 한 차원이라 할 수 있는 종교성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가 있는데, 청소년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종교성의 정도가 클수록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Carothers, Borkowski, Lefever, and Whitman, 2005). 이 연구들을 통해서 영성지향도와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영성지향도와 일탈행동은 어떤 관련이 있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영성지향도와 각각의 일탈행동 간 관련성을 살펴보면, 알코올 중독 회복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성과 알코올 절주 기간 간의 관계가 유의미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영성지향도가 클수록 알코올 절주 기간이 길어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Poage, Ketzenberger, and Olson, 2004). 이 연구에서 영성 지향도와 과음 행동 간에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또 영성지향도와 약물중독을 다룬 연구도 있었는데, Koenig(2001: 엄예선, 2001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영성지향도와 약물중독의 관계를 다룬 138개 연구를 분석한 결과, 124개 연구들에서, 영성지향도가 약물중독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였다.

- 4) 여기에서 남이란 나 이외의 모든 것들로서 사람들, 우주를 포함한 모든 사물들, 내가 믿고 있는 궁극적 실재(예, 하나님, 부처님, 산신령)들이다(박승희·이혁구 외 역, 2003).
- 5) 영성에 대한 정의에서 나타났지만, 재차 강조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성과 종교의 구별이다. 왜냐하면 영성과 종교 간에는 개념상 중복이 있어서 이로 인해 개념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종교와 영성의 개념을 구분해 보면, 어떤 학자에 따르면, 종교는 한 종교 공동체내에서 믿는 절대적 신에 의하여 공유되고 따라서 제도화된 가치와 신념들이라고 한다면, 영성은 그것이 종교적 테두리 내외를 막론하고 절대적 존재에 대한 개인의 신념과 경험, 연결의식, 의미, 내적인 전체성 등과 같은 내적 가치들에 따른 궁극적 인간 조건이라고 구별할 수 있다(Wright, Watson and Bell, 1996 : 31). 또 다른 학자에 따르면, 영성은 의미에 대한, 그리고 자신·타인·궁극적 실재와 관련된 윤리적 틀에 대한 감지를 추구하는 인간존재의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측면과 관련된다. 이런 맥락에서 영성은 종교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하고, 종교와는 별개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종교는 영적인 관심을 목표로 삼은 인간의 신념들, 행동들, 체험들이 제도화된 양식이며, 이는 공동체에 의해 공유되고 시대를 넘어 전승된다(박승희·이혁구 외 역, 2003)고 구별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영성과 종교 개념 간에는 포함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종교가 영성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종교는 영성의 한 종류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영성 지향도와 혼외관계의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연구로, 강한 영적 신념을 가진 사람(영적인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람 혹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킨 영적 경험을 가진 사람)은 성적으로 덜 허용적인 태도(혹은 보수적인 행동 및 태도)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를 찾아볼 수 있었다(Beckwith and Morrow, 2005).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이 영성적 삶을 지향할수록 혼외관계 행동을 덜 보일 수 있는 것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다.

영성 지향도와 폭력행동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영적 요인이 청소년의 폭력 행동과 관련된 위험 행동들을 최소화시키는데 보호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Windham, Hooper, and Hudson, 2005). 청소년의 영적 요인이 폭력행동을 최소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년 남성에게 있어서도 영적 측면이 폭력행동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영성의 한 종류라 할 수 있는 종교와 일탈행동의 관계도 살펴보자. 한 연구에서는 개신교인은 교회에서 직책이 높거나, 개인적 신앙생활의 정도가 강할수록 일탈행위 정도가 약하다고 보고되고 있었다(전성표, 2000). 그리고 종교를 교인으로서의 자기 확인 정도, 교회등록, 예배참여의 빈도의 3가지 차원으로 연구한 논문 결과를 보면, 교인으로서의 동일시 정도와 교회등록은 아노미를 낮추는데 기여하지 않았으나, 예배참여빈도는 아노미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ong, 1981: 홍옥화, 1993에서 재인용). 이 결과는 개인의 아노미를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종교적 신념 보다 종교적 활동이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교가 사람들에게 술, 담배, 도박 등을 피하게 함으로써 건강한 삶의 유형을 개발한다(엄예선, 2001). 종교가 혼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 학자도 있다(이영숙 외 2인, 2000에서 재인용). 이상의 연구들을 살펴볼 때, 중년 남성들의 영성지향도와 일탈행동 간에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2)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및 일탈행동 간의 관계

①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다양한 심리적 측면(자아존중감, 개인통제감, 정신건강, 심리적 안녕 및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Rook, 1984: 안재진·김지혜, 2004에서 재인용; 진복선, 1997)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중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조사한 연구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대신 청소년, 미혼모, 성인, 성인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발견되었는데, 사회적 지지와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서로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주장한 연구(김애경, 2003), 사회적 관계망이 미혼모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킨다고 주장한 연구(안재진·김지혜, 2004) 등이 그것이다. 치매노인 환자를 돌보는 성인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간 관계는 정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obinson, 1990). 이 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중년 남성들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② 사회적 지지와 일탈행동 간의 관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지지와 일탈행동간 관련성을 연구한 것들이 많다. 예컨대, 사회적 규준, 사회적 통제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일탈행동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진

복선, 1997). 사회적 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비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돈규, 1997; 안재진·김지혜, 2004에서 재인용). 사회적 관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주장(정규석, 2004)도 있다. 부모, 친구, 교사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가 좋을수록 전반적 적응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사회적 관계모델이 청소년의 전반적 적응과 학업적 적응(성적)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이 좋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적응도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들이 비록 청소년을 대상을 한 연구이기는 하지만, 사회적 지지와 일탈행동 간의 관련성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음을 볼 때, 중년기 남성의 사회적 지지와 일탈행동 간에도 어떤 관련성이 있을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겠다.

③ 자아존중감이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행동적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신경증, 불안, 방어, 우울과 같은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약물남용, 알코올중독, 아동학대 등과 같은 일탈적 문제행동들을 보인다(Daly and Burton, 1983).

자아존중감과 일탈행동의 관련성을 주장하는 연구들을 보면, 자아존중감의 저하가 일탈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주장이 있다(Kaplan, 1983; 안재진·김지혜, 2004에서 재인용). 청소년과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이 연구 대상자들의 공격성, 반사회적 행동, 비행 등과 같은 외적 행동들과 강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Donnellan, Trzesniewski, Robins, Moffitt, and Caspi, 2005). 비행 청소년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에서 자아존중감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한 연구를 보면, 비행 청소년 집단에서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박영신·김의철,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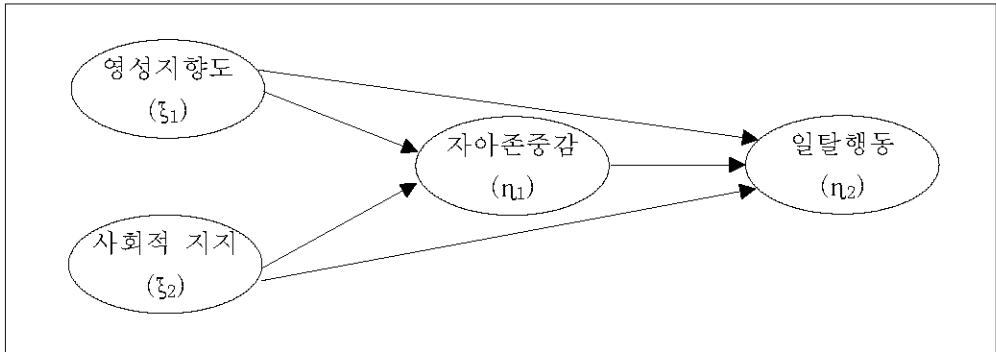
자아존중감과 일탈행동의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남성들일수록 아내학대와 연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Walker, 1979; 김평일, 1987; 정서영, 1995; 최규련, 1996; 김경신 외 2, 1999에서 재인용). 낮은 자존감, 우울감 및 불쾌한 정서를 피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회피적 목적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도박에 빠진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낮은 자기존중감과 우울감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흥표, 2003).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토대로 보면 자아존중감과 일탈행동의 관련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영성지향도 혹은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일탈행동이 어떤 역동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영성지향도, 자아존중감, 일탈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일탈행동 간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들은 몇 편 발견되었다.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심리적 안정에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 관계가 역동적 구조를 가지며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적 기준, 사회적 통제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일탈행동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기준, 사회적 통제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심리적 안정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관계적 맥락이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진복선, 1997).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조사한 연구(Moran and DuBois, 2002; 안재진·김지혜, 2004에서 재인용)가 있다. 그 연구

에서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중재 및 직접효과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들을 살펴볼 때, 중년 남성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일탈행동 간에도 직, 간접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3.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이론고찰을 통해서 도출한 영성지향도,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변인이 중년기 남성의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그림-1> 참조. 외생변수로는 영성지향도와 사회적 지지가 설정되었고, 내생변수로는 자아존중감과 일탈행동이 설정되었다.



<그림-1> 연구모형⁶⁾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중년 남성의 영성지향도가 클수록 일탈행동은 감소할 것이다.
- <가설 2> 중년 남성의 영성지향도가 클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을 것이다.
- <가설 3> 중년 남성의 사회적 지지가 클수록 일탈행동은 감소할 것이다.
- <가설 4> 중년 남성의 사회적 지지가 클수록 자아존중감은 증가할 것이다.
- <가설 5> 중년 남성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일탈행동은 감소할 것이다.

6) 연구모형에서 ξ 는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외생변인을 의미하고, η 는 내생변인을 의미한다.

4. 연구 방법

1)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1) 영성지향도

본 연구에서 영성지향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해치, 버그, 내버하우스와 헬미치(Hatch, Burg, Naberhaus, and Hellmich, 1998)가 개발한 The Spiritual Involvement and Beliefs Scale(SIBS)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⁷⁾ 본 척도는 그러한 척도와는 달리 영성지향도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이다.⁸⁾ 본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은 4가지로 구분된다. 제 1요인은 영적 의식 및 활동 요인, 제 2요인은 영적 신념요인, 제 3요인은 존재·명상적 요인, 제 4요인은 겸손 및 영적 원리 적용 요인이다.⁹⁾

본 척도는 외국에서 개발된 척도이기 때문에, 이 요인구조가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 본 자료에도 대체로 잘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Chi-square=10.211/df=2, p=.006, GFI=.991, TLI=.975, IFI=.992, CFI=.992, RMSEA=.083). 각 요인에 대한 영성지향도의 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 계수는 .89이다.

(2)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현재 자신에 대한 평가 및 자신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를 지각함으로써,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로젠버그(1965)가 개발하고, 노은여·권정혜(1997)가 번안한 척도 중에서, 6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최종 신뢰도 계수는

7) SIBS는 총 26문항이었는데, 그 중 영적 신념에 해당하는 3문항은 의미가 불분명(이중적 의미 내포)하여 제외시켰다. 그리고 영적 활동 부분에서 1문항을 연구자가 추가하여, 총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SIBS 원래 척도는 Cronbach의 알파 =.92로서, 높은 내적 일관성을 가진 도구이고, 타당도 또한 좋은 편으로 보고되고 있다(Hatch et al., 1998).

8) 기존에 영성지향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들로 영적 안녕(Ellison and Paloutzian, 1982), 종교성(Allport and Ross, 1967) 등과 같은 척도들이 있다. 그런데 그 도구들은 문화적 혹은 종교적으로 어느 한 측면으로 치우쳐 있거나, 영성지향도의 개념을 포함하는데 있어서도 포괄적이 못하고 제한적(예, 영적 신념만 측정)이라는 비판이 있다(Hatch et al., 1998).

9) 영성지향도를 측정하는 문항의 예들을 몇 가지 소개하면, ‘나는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찾는다.’, ‘나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감사함을 느낀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 같다.’, ‘내 모든 삶은 신과 관련이 있다.’, ‘내 삶에는 목적이 있다.’, ‘나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과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나의 문제를 종교적 도움(신, 목사, 교우 등)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는 편이다.’, ‘신앙적 삶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정신적 만족을 준다.’, ‘기도(명상, 음덕, 자기각성)한다고 꼭 현실이 변하지는 않는 것 같다.’ 등이 있다.

.74이다.

(3)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를 구조적 지지와 기능적 지지로 분류하여, 구조적 지지는 지지망 크기와 접촉빈도로 구성하였다. 지지망 크기와 접촉빈도는 강성희(1996)의 척도를 모체로 하여, 본 연구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망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접촉빈도는 사회적 지지망의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접촉하는지에 대한 빈도를 나타낸다. 높은 점수는 접촉빈도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기능적 지지는 박지원(1985)의 사회적 지지 척도를 바탕으로 하였고, 하위 유형으로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 평가적 지지 등으로 분류되었다.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총 6개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 계수는 .81이다.

(4) 일탈행동

본 연구에서 중년 남성의 일탈행동은 사회문화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사회규범(법률, 도덕, 민규, 민습 등 포함)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일탈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변수들로는 과음행동¹⁰⁾, 혼외관계행동¹¹⁾, 가정내 폭력행동¹²⁾, 도박행동¹³⁾이다.¹⁴⁾ 일탈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중년기 관련 이론고찰을 통해 중년기 일탈행동의 유형들을 확인하고, 청소년 일탈행동 측정 도구(진복선, 1997; 이기성, 1999; 서희진, 2003; 박영신·김의철, 2003)들을 참고로 하여 구성하였다. 총 문항 수는 8개이고,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 계수는 .80이다.

2) 자료수집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전국 시·도·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40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남성이다. 자료수집방법은 비확률 표본추출방법인 할당표본방식을 취하였다. 본 자료수집 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03년 5월말까지였다. 설문조사는 중년기 남성이 있는 다양한 직장 및 사업장, 사회 및 종교기관 및

10) 본 연구에서 과음행동은 자신의 주량을 벗어난 음주행동을 의미한다.

11) 혼외관계는 혼외성관계(사회학적 개념), 외도(대중적인 개념), 간통(법적인 개념) 등의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혼외관계는 혼외성관계와 동일한 개념으로, 기혼자가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데, 단, 정신적 관계에 있거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혼외관계는 제외한다(공미혜·구명숙, 2001). 본 연구에서 혼외관계행동이란 공미혜·구명숙(2001)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성매매 여성 포함)과 성적 관계를 갖는 행동을 의미한다.

12) 본 연구에서 가정내 폭력행동은 중년 남성이 가정 내에서 아내, 자녀, 부모에 대하여 가하는 폭력행동을 의미한다.

13) 본 연구에서 도박행동은 화투, 마작, 카드, 경마, 경륜, 카지노, 투견 등을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14) 이들 각각의 행동들은 사회복지·사회학·심리학 일반에서 사용되고 있는 알코올중독, 가정폭력, 혼외관계, 도박 등과 같은 이론 개념과는 다른 차원임을 밝히고자 한다. 이것은 일탈행동이라는 이론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변수로서 행동 차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이다.

단체에 설문을 배포한 다음, 응답자들이 자가 응답하여 우수하게 하거나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배포된 설문(1000부) 중에서 부실설문지를 제외하고, 593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분석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분석이다. 이 분석 방법은 측정변수 뿐만 아니라 이론변수까지 포함하여 더 다양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모형에서 이론변수와 측정변수가 구분되어 사용되는 것은 이 방법이 경로분석보다 더 진보된 방법론임을 나타낸다. 경로분석에서는 이론변수와 측정변수가 동일시되므로 이 방법에서와 같은 “보다 순수한” 이론변수가 추출되지 않는다. 경로분석에서 사용되는 변수는 측정오차가 함께 포함된 변수로, 순수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서는 측정변수들로부터 순수한 이론 변수 추출이 가능하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 하나의 이론변수는 두 개 이상의 측정변수들에 의해 간접적으로 측정된다. 그 이론 변수는 각 측정변수들의 단순 총합이 아니라, 각 측정변수들의 공통 부분 즉, 순수개념(측정오차가 없는 완벽한 측정치)이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이론구조는 이론변수들 간의 연결관계에 의해 가설화되고, 측정구조는 각 이론변수가 어떤 측정변수들에 의해 조작적으로 정의되는가를 나타내는 연결관계에 의해 가설화된다(이순목, 1990.)

본 연구에서 구조방정식모형이 사용된 목적은 첫째, 본 분석방법을 통해 보다 순수한 이론변수를 추출하여 이론변수들 간 이론구조를 밝히기 위함이고,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 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기 위함이다. 이 분석을 위해 사용된 통계 패키지는 AMOS 프로그램이다. 이외에도 연구 도구 신뢰도 검증, 조사대상자의 특성, 빈도, 백분율, ANOVA test를 위해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5. 조사결과 분석

1)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1) 개인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40대 전반이 249명(42.1%), 40대 후반이 199명(33.6%), 50대 전반이 89명(15.0%), 50대 후반이 55명(9.3%)으로 40대가 50대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고졸이 256명(43.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대졸 199명(33.6%), 중학졸업이하 90명(15.2%), 대학원 이상이 48명(8.1%)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종교

는 ‘없음’이 223명(37.8%)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148명(25.1%), 불교 109명(18.5%), 천주교 64명(10.8%) 순이었다. 조사대상자의 개인 월 소득은 200만 원 이상 300만원 미만이 213명(37.8%), 100만 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123명(21.8%), 300만 원 이상 400만원 미만이 101명(17.9%)으로 나타났고, 100만원 미만은 19명(3.4%)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직업은 자영업·일반판매 종사자가 213명(36.5%)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관리직 86명(14.7%), 기술직 70명(12.0%), 계장급이하의 공무원이나 회사원 63명(10.8%), 피고용 기술자·서비스 종사자 41명(7.0%) 등의 순이었다.

(2) 일탈행동 수준 분석

각 일탈행동 수준을 분석한 결과, 지나친 음주 해당 문항인 ‘나는 이전보다 술을 더욱 자주 마시고 있다’에 대한 분석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가 149명(25.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끔 그렇다’가 193명(32.5%), ‘그런 편이다’가 125명(21.1%), ‘보통이다’가 106명(17.9%), ‘매우 그렇다’가 19명(3.2%)이었다.

‘나는 점점 술 때문에 가정이나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에 대한 분석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가 260명(4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끔 그렇다’가 227명(38.8%), ‘보통이다’가 66명(11.1%), ‘그런 편이다’가 34명(5.7%), ‘매우 그렇다’가 5명(8%)이었다. 이 결과를 볼 때 본 조사대상자들은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음주행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혼외관계행동 해당 문항인 ‘나는 아내 이외에도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다’에 대한 분석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가 231명(39.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끔 그렇다’가 173명(29.2%), ‘그런 편이다’가 101명(17.0%), ‘보통이다’가 77명(13.0%), ‘매우 그렇다’가 6명(1.0%)이었다. 그리고 ‘나는 사창가나 퇴폐 유흥업소 출입을 한다’에 대한 분석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가 323명(54.5%)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끔 그렇다’가 173명(29.2%), ‘보통이다’가 60명(10.1%), ‘그런 편이다’가 30명(5.1%), ‘매우 그렇다’가 4명(7%)이었다. 이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본 조사 대상자는 보통 수준이상의 혼외관계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족폭력행동 해당 문항인 ‘나는 가끔 가족들에게 모욕적인 말과 욕설을 하여 감정을 상하게 한다’에 대한 분석결과, ‘가끔 그렇다’가 220명(37.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가 172명(29.9%), ‘보통이다’가 122명(20.6%), ‘그런 편이다’가 69명(11.6%), ‘매우 그렇다’가 7명(1.2%)이었다. ‘나는 가족과 다룰 때, 때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실제로 때린 적이 있다’에 대한 분석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가 243명(41.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끔 그렇다’가 207명(34.9%), ‘보통이다’가 76명(12.8%), ‘그런 편이다’가 58명(9.8%), ‘매우 그렇다’가 6명(1.0%)이었다. 이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비교적 높은 정도의 가족폭력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박행동 해당 문항인 ‘나는 도박을 한다’에 대한 분석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가 266명(44.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끔 그렇다’가 168명(28.3%), ‘보통이다’가 81명(13.7%), ‘그런 편이다’가 63명(10.6%), ‘매우 그렇다’가 9명(1.0%)이었다. ‘나는 한번 도박을 하면 쉽게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해서 한다’에 대한 분석결과, ‘전혀 그렇지 않다’가 349명(58.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끔

그렇다가 146명(24.6%), ‘보통이다’가 57명(9.6%), ‘그런 편이다’가 32명(5.4%), ‘매우 그렇다’가 7명(1.2%)이었다. 이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보통 수준 정도의 도박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리하면, 본 연구에서 중년 남성들은 과음행동, 혼외관계행동, 가정내 폭력행동, 도박행동 등 모든 영역에서 보통 수준부터 비교적 높은 수준까지 일탈행동 정도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중년기 남성들의 음주문제 실태(제갈 정, 2001), 혼외관계문제(Levinson et al., 1978: 406; Henry and Miller, 2004; Zastrow and Kirst-Ashman, 2002; 여성중앙21, 1998. 11: 이영숙 외 2, 2000에서 재인용; 전요섭, 2002), 가정폭력문제(중앙일보, 2001년 10월 24일), 도박행동문제(Eadington, 1996: 조광익·한범수, 1998에서 재인용; 이영분·이은주, 2003; 경향신문, 2004-10-31; 서울신문, 2004-11-01)가 심각하다고 주장한 바와 유사하다 하겠다. 이는 또한 중년기 남성의 일탈행동에 대한 사회복지학적 관심과 더 나아가 개입 방안 마련의 시급성을 시사해 주는 결과라 하겠다.

(3)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일탈행동 차이

다음에서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각각의 일탈행동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연령, 학력, 소득수준, 직업유형, 종교, 결혼기간에 따른 과음행동, 가정내 폭력행동, 혼외관계행동, 도박행동 차이를 살펴보았다.¹⁵⁾

첫째, 연령 집단(40~44세, 45세~49세, 50~54세, 55세~59세)에 따른 각각의 일탈행동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단지 가정내 폭력행동 평균이 연령 집단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_{값} = 2.78, p=.039$). 어떤 연령 집단들 간 평균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scheffe 검증)을 실시해 보니, 40~44세 집단과 50~54세 집단간 가정내 폭력행동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54세 집단이 40~44세 집단에 비해서 가정내 폭력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학력(초등학교 졸업 이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에 따른 각각의 일탈행동 차이를 분석한 결과, 가정내 폭력행동과 도박행동 평균이 학력 집단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정 내 폭력행동: $F_{값} = 2.735, p=.028$, 도박행동: $F_{값} = 3.368, p=.010$). 사후검증(scheffe 검증) 결과, 먼저 가정내 폭력행동의 경우를 보니, 중학교 졸업 집단과 대학교 졸업 집단 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중학교 졸업 집단이 대학교 졸업 집단보다 가정내 폭력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도박행동을 보니, 중학교 졸업 집단과 대학교 졸업 집단 간, 중학교 졸업 집단과 대학원 졸업 집단 간, 고등학교 졸업과 대학교 졸업 집단 간, 고등학교 졸업 집단과 대학원 졸업 집단 간 도박행동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졸업 집단이 대학교 졸업 집단보다 더 도박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학교 졸업 집단이 대학원 졸업 집단보다도 도박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 졸업 집단이 대학교 졸업 집단 보다 도박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 지면관계상 ANOVA test 표(사례 수, 평균, 표준편차, $F_{값}$, 유의확률이 포함된 표)는 생략한다.

고등학교 졸업 집단이 대학원 졸업 집단보다 도박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중학교 졸업 집단과 고등학교 졸업 집단들에서 도박행동을 좀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소득수준(100만원 미만, 100만 원 이상~200만원 미만, 200만 원 이상~300만원 미만, 300만 원 이상~400만원 미만, 400만 원 이상)에 따른 각각의 일탈행동 차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 집단들에서 각각의 일탈행동들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 일탈행동 차이는 없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넷째, 직업유형(행상 외, 자영업 외, 사무직 외, 관리직 외, 전문직)¹⁶⁾에 따른 각각의 일탈행동 차이를 분석한 결과, 도박행동 평균이 직업유형 집단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_{값} = 2.532, p=.039$). 사후검증(scheffe 검증)결과, 행상 외 집단과 전문직 집단 간, 자영업 외 집단과 사무직 외 간, 사무직 외 집단과 관리직 외 집단 간, 사무직 외 집단과 전문직 집단 간 도박행동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상 외 집단이 전문직 집단보다 도박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무직 외 집단이 자영업 외 집단보다 도박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무직 외 집단이 관리직 집단보다 도박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무직 외 집단이 전문직 집단보다 도박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사무직 외 집단이 도박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종교(종교 없음,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에 따른 각각의 일탈행동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과음행동과 혼외관계행동 평균이 종교 집단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과음행동: $F_{값} = 5.284, p=.000$, 혼외관계행동: $F_{값} = 3.254, p=.012$). 사후검증(scheffe 검증) 결과, 과음행동의 경우에는 종교 없음 집단과 기독교집단 간, 기독교 집단과 불교집단 간 과음행동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없음 집단이 기독교 집단보다 과음행동을 더 많이 하고, 불교집단이 기독교 집단보다 과음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외관계행동의 경우에는 종교 없음 집단이 기독교 집단보다 혼외관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종교 없음 집단에서 과음행동 및 혼외관계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여섯째, 결혼기간(1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30년 미만, 30년 이상~40년 미만)에 따른 각각의 일탈행동 차이를 분석한 결과, 결혼기간 집단들에서 각각의 일탈행동들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기간에 따른 일탈행동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2) 모형검증 결과

본 장에서는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전제조건들을 검토한 뒤¹⁷⁾, 영성지향도, 사회적

16) 직업 유형 분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상, 수위, 청소부, 막노동, 피고용기술자, 서비스종사자, 둘째, 자영업, 일반판매종사자, 셋째, 일반사무직, 계장급이하 공무원, 회사원, 넷째, 기술직, 관리직, 다섯째, 전문직이다.

17)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첫째, 모형인정의 필요조건이 충족(정보의 수가

지지, 자아존중감 등의 영향이 일탈행동에 이르는 경로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1) 기초모형 검정

① 적합도 검정

영성지향도,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일탈행동의 관계구조를 분석하여 적합도를 알아본 결과는 아래 <표-2>에 제시하였는데, 모형적합도 지수가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는 Chi-square, GFI, TLI, IFI, CFI, RMSEA 등이 사용되었다.¹⁸⁾

<표-2> 기초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지수	Chi-square	GFI	TLI	IFI	CFI	RMSEA
초기모형	874.743(df=246)	.891	.831	.850	.849	.066

(2) 모형수정을 통한 최종모형

① 최종모형의 적합도

전반적으로 적합도 지수들이 좋고, 간명도가 좋은 모형을 찾고자 모형수정을 시도한다. 본 연구에 서는 기존의 이론변인을 유지하면서 경로를 추가하는 방법(적합도를 높이고자 할 경우 사용), 기존의 이론변인을 유지하면서 경로를 제거하는 방법(간명도를 높이고자 할 경우 사용)을 사용하여 모형수정을 실시하였다.

먼저, 적합도를 높이기 위해 수정지수, 이론 및 경험적 관련성을 근거로 경로를 자유모수로 전환하였다. 전환된 경로는 가정내 폭력행동1과 가정내 폭력행동2 측정오차간의 관계와, 측정변인 도박행동1과 도박행동2의 측정오차간의 관계이다. 다음으로, 적합도를 유지하면서도 간명도를 높이고자 하는 방법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은 경로(사회적 지지 → 일탈행동)를 0으로 고정시킴으로써 모형수정을 하였다.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분석결과, GFI, TLI, IFI, CFI 등은 각각 .924, .924, .924로 나타났

미지수의 수보다 많음)되는지, 둘째, 일정수준의 표본크기가 확보되었는지, 셋째, 정규분포성, 선형성 등과 같은 다변량분석 통계의 기본 가정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였다. 넷째, 공변량구조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측정도구가 실제로 무엇을 측정하였는지, 또는 조사자가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로 측정도구에 의해서 적절하게 측정되었는가에 관한 개념적 타당성(construct validity)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검토해 보기 위해, 상관의 적절성 확인, 다중공선성 여부 확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자료에서 상관의 적절성 및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표를 분석해 본 결과, 상관의 방향이 적절하였고, 다중공선성도 발견되지 않았다. 확인요인분석은 3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첫 번째 외생변인들 간(영성지향도와 사회적 지지)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GFI=.980, NFI=.969, TLI=.981, CFI=.986, RMSEA=.037), 둘째, 외생변인들과 매개변인들 간(영성지향도,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확인요인분석(GFI=.947, NFI=.910, TLI=.933, CFI=.943, RMSEA=.051)을 실시하였다. 확인요인분석 결과 외생 및 매개변인들이 개념적으로 변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적합도 지수인 GFI, NFI, TLI, CFI 등은 0.9 이상이면 적합한 모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RMSEA는 0.05보다 작을 때 그 모형은 양호하다고 할 수 있고, 0.08이하일 때는 어느 정도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김계수, 2002).

고, RMSEA는 .047로 나타나, 본 모형은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에 기초해서 본 최종모형이 현실적인 자료에 잘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3> 참조

<표-3> 최종모형의 적합도

적합도 지수	Chi-square	GFI	TLI	IFI	CFI	RMSEA
수정모형	563.153(df=245)	.924	.914	.924	.924	.047

② 최종모형 분석

아래 <표-4>는 각 이론변인들에 대한 측정모형 결과이다(비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오차, 표준화된 경로계수, C.R.¹⁹⁾). 분석 결과, 이론 변인인 영성지향도를 측정하는 측정변인 4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변인인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측정변인인 6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변인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는 측정변인 6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변인인 일탈행동을 측정하는 측정변인 8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19) AMOS 프로그램에서 C.R.(Critical Ratio)은 각 모수의 유의도 검정을 위한 값으로, 이 값이 1.96 이상이면 $\alpha=.05$ 수준에서 “인과관계 있다”는 대립가설을 감정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이것은 SPSS 프로그램에서 보통 t로 표시되는 값이다.

<표-4> 측정모형 분석결과

이론변인	경로	비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오차	표준화된 경로계수	C.R.
영성지향도	영적의식·활동 ← 영성지향도	1.000		.784	
	영적신념 ← 영성지향도	1.234	.063	.831*	19.645
	존재·명상 ← 영성지향도	.840	.047	.744*	17.834
	겸손·영적원리적용 ← 영성지향도	.724	.043	.705*	16.822
사회적 지지	지지크기 ← 사회적 지지	1.000		.289	
	지지빈도 ← 사회적 지지	1.071	.196	.385*	5.468
	정서지지 ← 사회적 지지	1.760	.267	.835*	6.582
	정보지지 ← 사회적 지지	1.643	.251	.793*	6.552
	물질지지 ← 사회적 지지	1.334	.215	.582*	6.214
	평가지지 ← 사회적 지지	1.353	.212	.663*	6.381
자아존중감	자존1 ← 자아존중감	1.000		.674	
	자존2 ← 자아존중감	.667	.073	.453*	9.096
	자존3 ← 자아존중감	1.100	.098	.584*	11.243
	자존4 ← 자아존중감	.945	.084	.588*	11.310
	자존5 ← 자아존중감	.921	.081	.594*	11.398
	자존6 ← 자아존중감	.902	.088	.524*	10.305
일탈행동	과음1 ← 일탈행동	1.000		.508	
	과음2 ← 일탈행동	1.001	.100	.656*	9.998
	혼외관계1 ← 일탈행동	1.140	.119	.598*	9.551
	혼외관계2 ← 일탈행동	1.004	.100	.664*	10.053
	가정내 폭력행동1 ← 일탈행동	.925	.103	.540*	9.004
	가정내 폭력행동2 ← 일탈행동	.750	.095	.441*	7.855
	도박행동1 ← 일탈행동	.762	.100	.423*	7.658
	도박행동2 ← 일탈행동	.726	.090	.458*	8.108

* p<.05

아래 <표-5>는 이론변인의 모수추정 결과이다(비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화된 경로계수, C.R., SMC²⁰⁾). 내생변인인 자아존중감의 변량이 영성지향도 및 사회적 지지에 의해서 설명되는 정도는 14%이고, 일탈행동의 변량이 영성지향도 및 자아존중감에 의해서 설명되는 정도는 20%로 나타났다.

이론변인간 경로계수 및 통계적 유의도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에 이르는 영성지향도 및 사회적 지지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를 보면, 영성지향도는 .166(p<.05)이고, 사회적 지지는 .473(p<.05)로 두 경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탈행동에 이르는 영성지향도 및 자아존중감의 표준화된 경로계수를 보면, 영성지향도는 -.190(p<.05)이고, 자아존중감은 -.399(p<.05)로 두 경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6>은 이론변인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결과이고, <그림-2>는 측정변인과 이론변인들의

20) AMOS 프로그램에서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다중상관자승치)는 내생변인의 변량이 예측 변인에 의하여 설명되는 정도를 보여 준다. 이것은 SPSS 프로그램에서 보통 R²으로 표시되는 값이다.

모수추정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경로 도해이다. 이들을 토대로 변인들간 직접, 간접, 총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영성지향도는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효과 $r=-.166(p<.05)$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는 없고, 총효과는 직접효과 크기와 같다.

영성지향도는 일탈행동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는 $r=-.190(p<.05)$, 간접효과는 $-.066(p<.05)$, 총효과는 $-.256(p<.05)$ 이다.

사회적 지지는 자아존중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효과 $r=.473(p<.05)$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는 없고, 총효과는 직접효과 크기와 같다.

사회적 지지는 일탈행동에 대하여 직접효과는 없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는 $-.189(p<.05)$, 총효과는 $-.189(p<.05)$ 이다.

자아존중감은 일탈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효과 $r=-.399(p<.05)$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효과는 없고, 총효과는 직접효과 크기와 같다.

<표-5>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표준화된 경로계수 및 다중상관지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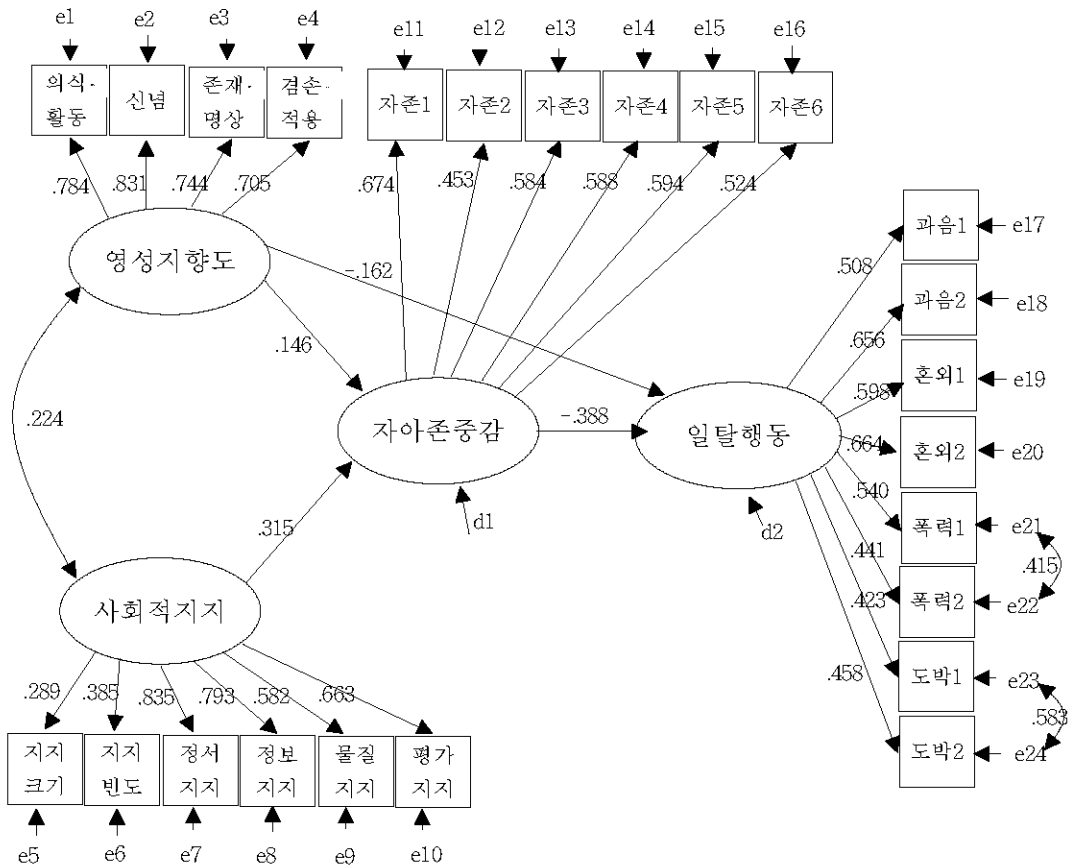
내생변인	비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화된 경로계수	C.R.	SMC
외생변인(모수)				
자아존중감				.141
영성지향도	.166	.146	2.857*	
사회적 지지	.473	.315	4.491*	
일탈행동				.204
영성지향도	-.190	-.162	-3.166*	
자아존중감	-.399	-.388	-6.096*	

* $p<.05$

<표-6> 이론변인 간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비표준화	표준화
영성지향도->자아존중감	.166*	.146	.000	.000	.166*	.146
영성지향도->일탈행동	-.190*	-.162	-.066*	-.057	-.256*	-.219
사회지지->자아존중감	.473*	.315	.000	.000	.473*	.315
사회지지->일탈행동	.000	.000	-.189*	-.122	-.189*	-.122
자아존중감->일탈행동	-.399*	-.388	.000	.000	-.399*	-.388

* $p<.05$



<그림-2> 최종모형 및 경로계수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설 1> ‘중년 남성의 영성지향도가 클수록 일탈행동은 감소할 것이다’는 일탈행동에 대한 영성지향도의 경로계수가 $-.190(p<.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잠정적인 참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영성지향도가 일탈행동의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결과와 비슷한 것이라 하겠다(Poage et al., 2004; Windham et al., 2005; Beckwith and Morrow, 2005). 본 연구의 결과 중년 남성의 영성지향도가 클수록 일탈행동은 감소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가설 2> ‘중년 남성의 영성지향도가 클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을 것이다’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성지향도의 경로계수가 $.166(p<.05)$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잠정적인 참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영성지향도가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킨다(Oscar, 1982; Hall and Hall, 1997; Koenig and Cohen, 2001; Tan, 2003; Sperry, 2003; Popkess-Vawter, et al., 2005; Carothers et al., 2005)는 결과와 비슷하다. 본 연구의 결과 중년 남성의 영성지향도가 클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가설 3> ‘중년 남성의 사회적 지지가 클수록 일탈행동은 감소할 것이다’는 일탈행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아 잠정적인 참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일탈행동을 감소시킨다고 주장한 연구 결과(진복선, 1997; 양돈규, 1997; 안재진·김지혜, 2004에서 재인용; 정규석, 2004)와는 상반되는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보면, 청소년 대상 사회적 지지는 일탈행동을 감소시키는 데 반해, 중년기 남성 대상 사회적 지지는 일탈행동에 별다른 영향을 갖지 않을 수도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가설 4> ‘중년 남성의 사회적 지지가 클수록 자아존중감은 증가할 것이다’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경로계수가 .473($p < .05$)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잠정적인 참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같은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킨다(Robinson, 1990; 김애경, 2003; 안재진·김지혜, 2004)는 결과를 통해 지지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중년 남성의 사회적 지지가 클수록 자아존중감이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가설 5> ‘중년 남성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일탈행동은 감소할 것이다’는 일탈행동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경로계수가 $-.399(p < .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잠정적인 참으로 받아들여졌다. 이 같은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일탈행동을 감소시킨다는 주장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Walker, 1979; 김광일, 1987; 정서영, 1995; 박영신·김의철, 2003; 이흥표, 2003; Donnellan et al., 2005). 본 연구의 결과 중년 남성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일탈행동이 감소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년 남성들의 일탈행동 문제를 예방하고 개입하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적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중년기 남성들의 일탈행동을 정의하고, 영성지향도,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이 일탈행동에 미치는 경로(직접, 간접, 매개)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파악하였다.

가설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첫째, 영성지향도와 일탈행동의 관계에서, 영성지향도는 일탈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자아존중감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영성지향도가 클수록 중년기 남성의 일탈행동이 직접적으로 감소될 수 있겠고, 또한 영성지향도가 클수록 자아존중감이 증진되고, 그럼으로써 일탈행동이 감소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일탈행동이 직접적으로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중년 남성의 영성지향도를 일차적으로 강화시키는 일이 중요하겠고, 또한 영성지향도를 강화시켜서 자아존중감을 증진시킴으로써 일탈행동을 감소시키는 일도 필요하겠다.

둘째, 사회적 지지 변인은 일탈행동에 대하여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간접적으로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연구(Moran and DuBois, 2002, 안재진·김지혜, 2004)를 통해 지지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가 비록 일탈행동에

직접 영향력을 갖지 않더라도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지지가 중년 남성의 일탈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도, 자아존중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중년 남성의 사회적 지지를 강화시켜줌으로써 자아존중감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으로써 일탈행동을 감소시키도록 하는 일이 중요한 일임을 인식해야 하겠다.

본 연구의 의의는 사회복지학 영역에서 중년기 남성의 일탈행동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영성지향도,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변인들이 일탈행동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줌으로써, 사회복지학 영역에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영성지향도에 대한 관심을 일깨워 주었다고 볼 수 있고, 청소년 일탈행동 관련 변수로 알려졌던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이 중년기 남성의 일탈행동 관련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 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 차원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첫째, 일탈행동 문제를 개입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접근방법(예, 심리사회적 접근방법 등)에 영성적 접근을 통합 적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고 본다. 예컨대, 사회복지사들이 할 수 있는 영성 지향적 접근 방법의 예로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기도를 하기, 클라이언트와 종교적·영적 관심사를 함께 나누기, 종교계에 지원 요청 및 의뢰하기 등이 있을 것이다.²¹⁾ 영성이 개인의 심리, 정신적 문제, 행동 문제 치료에 효과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 주장들(Sperry, 1993; Coyne, 2005)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접근은 중년 남성의 일탈행동 문제를 다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²²⁾

둘째, 일탈행동에 대하여 자아존중감을 통한 간접 영향력을 가진 사회적 지지 변인도 증시 되어야 하겠다. 중년기 남성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지지의 원천은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단체, 조직, 상담 기관 등이 될 수 있다. 중년 남성의 일탈행동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그 개인이 사회적 지지의 원천들과 얼마나 자주 접촉하는지, 그리고 이 원천들로부터 얼마나 적절한 지지, 정보, 자원 등을 제공 받고 있는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지 원천의 범위가 좁거나 혹은 크더라도 그 기능이 약할 경우에는 사회적 지지 원천을 개발해 주고, 그 기능도 강화해 주는 접근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지지를 확충하고, 강화하는 접근을 취할 때, 직접 일탈행동을 감소시키지는 않더라도 자아존중감을 증진시켜서 간접적으로도 일탈행동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셋째, 자아존중감은 일탈행동에 대하여 강한 관련성을 갖고 있고, 게다가 영성지향도와 사회적 지지의 영향을 받아 일탈행동을 감소시키는 매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중년기 남성의 일탈행동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자아존중감 변인 또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 21) 영성지향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가 영성지향적 사회복지실천에 관심과 어느 정도 이해와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이 주제(사회복지사의 영성 지향적 사회복지실천 능력)는 본 논문 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이 정도만 언급하고, 추후 연구 과제로 남기기로 한다.
- 22) 물론, 인간에게 영적 차원이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이를 부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영적 접근을 취하는 일은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영성지향도와 사회적 지지 등의 변수들의 관련성을 고려한 접근방법이 시도 되어야 하겠다.

학문적 차원에서 제한하고자 하는 바는 첫째, 일탈행동 유형은 여러 유형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 4 가지를 일탈행동 유형으로 삼은 것은 이 유형들이 중년기 남성이 주로 많이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이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일탈행동 범위를 확대시켜(예, 약물중독, 자살, 범죄 등도 포함),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는 중년 남성들의 일탈행동에 직접 관련은 없고, 간접적인 관련성만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사회적 지지와는 직접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중년기 남성의 일탈행동의 경우에는 직접 관련성을 갖지 않은 점에 대하여 후속 연구에서 반복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일탈행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가 청소년과 중년 남성이 서로 다른 지, 다르다면 어떤 이유에서 다른지가 규명될 수 있기를 바란다.

셋째, 본 연구에서 일탈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요하게 관심을 둔 변인들이 영성지향도,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등의 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외 일탈행동과 관련될 수 있는 변인(예, 가족 관계 요인)들이 다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변인들과 일탈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후속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성희. 1996. “도시 기혼 남녀의 사회적 지지”.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기숙. 2002. “중년기 남성의 심리적 위기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고기숙·이혁구. 2004. “중년기 남성의 사회적 위기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 가족환경특성 및 자원봉사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사회복지학』 13: 9-41.
- 공미혜·구명숙. 2001. “혼외관계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한국여성학』 17(2).
- 김광일. 1987. 『가정폭력 - 그 실상과 대책 -』. 서울: 탐구당.
- 김경신·박옥임·정혜정. 1999. “가부장적 관점에서의 가정폭력 - 아내학대를 중심으로 -”. 『한국가족관계학』 4(2): 213~239.
- 김계수. 2002. 『AMOS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SPSS 아카데미.
- 김명자. 1989. “중년기 위기감 및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애경. 2003. “부모의 갈등 및 사회적 지지와 내외통제성이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10(3): 351-372.
- 김애순·윤진. 1993. “중년기 위기감(1): 그 시기 확인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중년기 위기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3(1): 1-16.
- 노은여·권정혜. 1997. “결혼생활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기혼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2 - 자아존중감의 변동성과 남녀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임상』 16(2).
- 박승희·이혁구 외 역, 2003. 종교사회복지실천론. Canda, E. R., and Furman, L. D. 1999. *Spiritual Diversity in Social Work Practice*.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박영신·김의철. 2003. “청소년 일탈행동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1): 81-114.

- 박지원. 1985. "사회적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희진. 2003. "청소년의 스포츠 참가와 또래관계 및 일탈행동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2(3): 143-152.
- 안재진·김지혜. 2004. "미혼모의 사회적 관계망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6(3): 61-88.
- 엄예선. 2001. 『영성과 상담. 가족, 알코올 그리고 영성』. 가족상담센터 빵과 영혼 제2회 워크숍 및 강서정신보건센터 제3회 정신보건복지포럼.
- 옥양련·박금식 공편. 2001. 『오늘의 사회문제』. 서울: 유봉출판사.
- 이기성. 1999. "청소년 불안수준과 일탈행동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 논문.
- 이순득. 1990. 『공변량구조분석』. 서울: 성원사.
- 이영분·이은주. 2003. "충청 지역의 도박중독 실태와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4: 177-202.
- 이영숙·박경관·전귀연. 2000. 『혼외관계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이영호. 2003. 『정신건강론』. 경기도 파주시: 현학사.
- 이태원·김석준. 1998. "도박의 정치경제학 - 한국사회에서의 도박의 합법화와 도박문제의 확산에 관한 비판적 연구-". 『관광학연구』 21(2): 9-25.
- 이혁구. 1999. "중년기 위기와 개인적 반응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 149-164.
- 이홍표. 2003. "도박동기와 병적 도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169-869.
- 전성표. 2000. "개인의 도덕성과 일탈행위에 미치는 기독교의 영향". 2000년도 한국사회학회 전기 사회학대회 발표문 요약집. 314-326.
- 전요섭. 2002. "중년기 외도의 심리분석과 목회상담적 지원". 『한국개혁신학』 12: 339-67.
- 정규석. 2004. "사회적 관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6(1): 235-252.
- 정서영. 1995. "부부간의 심리적·신체적 학대, 대처 양식과 개인의 적응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제갈 정. 2001. "한국인의 음주실태".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 조광익·한범수. 1998. "카지노 방문 결정요인". 『관광학 연구』 21(2): 9-25.
- 진복선. 1997. "사회관계적 맥락이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최규련. 1996. "한국에서의 부부간 폭력에 대한 대책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 1: 103-130.
- 홍옥화. 1993. "한국여성의 아노미와 종교성에 관한 연구 - 개신교 여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중앙일보. 2001. 10. 24. 경향신문. 2004. 10. 31. 연합뉴스. 2004. 10. 31.
- 경향신문. 2004. 11. 1. 서울신문. 2004. 11. 1. 연합뉴스. 2004. 11. 24.
- Allport, G. W., and J. M. Ross. 1967.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 and prejudic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4): 432-433.
- Beckwith H. D., and J. A. Morrow. 2005. "Sexual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The impact of religiosity and spirituality." *College Student Journal* 39(2): 357-366.
- Canda, E. R., and L. D. Furman. 1999. *Spiritual Diversity in Social Work Practice*. The Fress Press.

- Carothers, S. S., J. G. Borkowski, J. B. Lefever, and T. L. Whitman. 2005. "Religiosity and the Socioemotional Adjustment of Adolescent Mothers and Their Childre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2): 263-275.
- Ciernia, J. R. 1985. "Death concern and businessmen's midlife crisis." *Psychological Reports* 56: 83-87.
- Cloward, R. A., and I. E. Ohlin. 1960. *Delinquency and opportunity*. NY: The Fress Press. p. 3.
- Cohen, A. K. 1959. "The Study of Social Disorganization and Deviant Behavior." pp. 462. in *Sociology Today*, edited by Robert K. Merton. NY: Basic Books.
- Coyne, C. 2005. "Addressing Spirituality - Issues in Patient Interventions." *July PT magazine*.
- Daly, M. J., and R. L. Burton. 1983. "Self Esteem and Irrational Beliefs: An Exploratory Investifgation With Implications for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3): 361-366.
- Donnellan, M. B., K. H. Trzesniewski, R. W. Robins, T. E. Moffitt, and A. Caspi. 2005. "Low Self-Esteem Is Related to Aggression, Antisocial Behavior, and Delinquency." *Psychological Science* 16(4): 328-335.
- Ellison, C. W., and R. F. Paloutzian. 1982. *The spiritual well-being scale*. Nyack. NY Life Advance. Inc.
- Franklin, C. W. 1991. *Men and Society*. Nelson-Hall Inc.
- Frame, M. W. 1996. "A social constructionist approach to counseling religious couples."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4. pp. 299-307.
- Gould, R. 1978. *Transformations*. N.Y.: Simon and Schuster.
- Hatch, R. L., M. A. Burg, D. S. Naberhaus, and L. K. Hellmich. 1998. "The Spiritual Involvement and Beliefs Scale: development and testing of a new instrument." *Mark Journal of Family Practice* 46(6): 476~487.
- Hall, M. E., and T. Hall. 1997. "Integration in the therapy room: An over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86-101.
- Henry, R. G., and R. B. Miller. 2004. "Marital Problems Occuring in Midlife: Implications for Couples Therapist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2: 405-417.
- Kets de Vries, M. F. R. 1999. "Organizational Sleepwalkers: Emotional Distress at Midlife." *Human Relations* 52 i11: 1377.
- Koenig, H. G., and H. J. Cohen. 2001. *The Link Between Religion and Health: Psychoneuroimmunology and the Faith factor*. Oxford University Press.
- Levinson, D. J., C. N. Darrow, E. B. Klein, M. H. Levinson, and B. Mckee.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Y.: Knopf.
- Merton, R. K. 1961. "Social Problems and Sociologicals, Theory." pp. 723-724. in *Contemporary Social Problems*. edited by R. K. Merton and R. A. Nisbbet. New

- York: Harcourt, Brace and World.
- O'Brien, P. J. 1992. "Social work and Spirituality : Clarifying the Concept for Practice." *Spirituality and Social work Journal* 3(1): 3.
- Oscar, B. M. 1982. "Religion and Community oriented Attitudes." *Journal for Social Scientific of Religion* 21(1): 45-48.
- Otis-Green, S., R. Sherman, and R. Perezx. 2002. "An Intergrated Psychosocial-Spiritual Model for Cancer pain Management." *Cancer Practice* 10(10): S58-S65.
- Parsons, T. 1951. *The Social System*. Glencoe: The Free Press.
- Poage, E. D., K. E. Ketzenberger, and J. Olson. 2004. "Spirituality, contentment, and stress in recovering alcoholics." *Addictive Behaviors* 29(9): 1857-1862.
- Popkess-Vawter, S., E. Yoder, and B. Gajewski. 2005. "The Role of Spirituality in Holistic Weight Management." *Clinical Nursing Research* 14(2): 158-174.
- Richards, P. S., and A. E. Bergin. 1997. *A spiritual strategy for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iegel, K. F. 1976. "The dialectics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31(10): 689-700.
- Robinson, K. 1990. "Th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skills,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burden in adult caregiver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5: 788-795.
- Sperry, L. 2003. "Intergrating Spiritual Direction Functions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1(1): 3-13.
- Tamir, L. M. 1989. "Modern myths about men at midlife: An assessment." pp. 157-180 in *Midlife myths: Issues, findings and practice implications*. edited by S. Hunter and M. Sundel. Newbury Park. CA: Sage.
- Tan, S. Y. 2003. "Integration Spiritual Direction into Psychotherapy: Ethical Issues and Guideline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31(1): 14-23.
- Walker, L. 1979. *The battered woman*. New York: harper and Low.
- Windham, R. C., L. M. Hooper, and P. E. Hudson. 2005. "Selected Spiritual Religious, and Family Factors in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Counseling and Values* 49(3): 208-216.
- Wright, L. M., W. L. Watson, and J. M. Bell. 1996. *The heart and healing in families and illness*. N.Y. : Basic Books.
- Zastrow, C., and K. K. Kirst-Ashman. 2002. *Understanding Human Behavior and the Social Environment*. Nelson-Hall publisher/Chicago.

The Impact of Spiritual Commitment,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Deviant Behavior of Middle-aged Man

Ko, Ki-Sook
(Open Cyber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spiritual commitment,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for the deviant behaviors of middle-aged men from 40 to 59 years old. Further, this study seeks for providing basic data for designing social welfare service programs to intervene and prevent such deviant behavior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are as follows. First, spiritual commitment could directly affect the mid-life deviant behavior, and could cause influence indirectly through the self-esteem. Second, social support could not directly affect the mid-life deviant behavior, but could cause negative influence indirectly through the self-esteem.

The significant is that this study triggered off interest in deviant behavior of middle-aged men. Especially, this study realized to us interest in spiritual commitment which has been not interested in the social work. This implicated that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might effect to be deviant behavior of middle-aged men as well as deviant behavior of youth.

Key words: deviant behavior, middle-aged men, spiritual commitment, social support, self-esteem, heavy alcohol, extramarital relationship, domestic violence, gambling.

[접수일 2005. 4. 23. 게재확정일 2005. 9. 26.]